

100년 만에 올림픽을 다시 개최하는 파리의 상징 에펠탑과 개회식의 주요 행사가 열릴 트로카데로 광장 일대가 불을 밝힌 채 전 세계에서 올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은 26일 오후 (현지시간)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센강과 트로카데로 광장 일대에서 성대한 개회식을 열고 16일간의 열전을 시작한다. 사진은 크로스 필터를 사용해 촬영한 에펠탑 일대 모습. 연합뉴스

파리서 100년 만에 열리는 스포츠 대축제

한국시간 27일 오전 센강 수상 행진으로 화려한 개막 '소수정예' 한국, 금메달 5개 목표 초과 달성 자신감

예술과 문화의 도시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100년 만에 펼쳐지는 스포 츠의 향연으로 지구촌의 중심에 다 시 선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26일 오 후 7시 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2 시 30분) 파리 센강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수상 행진으로 17일간 열전 의 막을 올린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승 후보 우상혁과 여자 수영의 베테랑 김서 영이 선상 개회식에서 공동 기수로 태극기를 펄럭이며 입장한다.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 올림픽에 참가해야 정상이다. 된 후 열리는 파리 올림픽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래 8년 만 오지 않아 파리 올림픽에는 NOC IOC의 징계를 받아 8년 만에 하계 탈바꿈한 프랑스의 창의력이 더해 에 관중과 함께하는 최대 스포츠 기준으로는 205개 팀만 참가한다. 잔치로 역사에 남을 예정이다.

파리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면한 대한민국은 이번에 21개 종

1900년, 19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하계 올림픽을 성대하게 준비 중이다.

대회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 폭염 우려 가 많이 줄었다. '완전히 개방된 대 회'를 표방한 파리 올림픽은 1만500 명의 참가 선수가 완벽한 남녀 성비 균형을 이룬 첫 대회가 될 예정이다.

원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에 등록된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와 IOC가 여러 사정으로 고 국을 떠난 선수들을 위해 결성한 트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를 획 전 세계를 위협한 신종 코로나바 난민팀을 포함해 207개 팀이 하계 득해 종합 순위 10위에 오를 것으 전, 파리의 상징 에펠탑과 트로카

엘리트 스포츠의 최대 위기에 직 에 16명의 선수를 보냈다.

목, 143명의 선수만 파견했다. 1976 년 몬트리올 대회 이래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다.

대한체육회는 '소수 정예' 국가 대표를 위해 파리 외곽 퐁텐블로에 사전 훈련캠프와 급식센터를 아우 른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을 12년 만에 조성하고 기적을 준비했다.

양궁과 펜싱에서 금메달 5개 이 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5위 이내 를 목표로 내건 대한민국은 현재 수영, 육상,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등 다른 종목에서도 힘을 보태 목 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 감에 불타 있다.

미국 데이터 업체인 그레이스노 로 전망했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밋거리다.

32개 종목에서 329개의 금메달을 놓고 우정의 한판 대결을 벌인다.

거의 전 종목에서 고른 기량을 확보한 초강대국 미국이 중국을 따 돌리고 금메달 40개 가까이 따내 종합 순위 1위에 오르리라는 전망 이 우세하다.

올림픽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선 거 운동에 나선 골프 여제 박인비 의 IOC 선수위원 당락은 8월 7일 결정된다.

80억명을 돌파한 지구인들은 파 리 올림픽 센강 수상 행진을 두고 개최국의 예술적 역량을 집대성했 다는 평가를 받는 올림픽 개회식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그랑 팔레, 베르사유 궁 데로 광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과 그러나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나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탓에 상징성이 큰 유적지를 경기장으로 올림픽에 복귀한 북한은 7개 종목 저 스포츠와 예술의 앙상블이 선사 할 색다른 재미도 이번 대회의 흥

제주Utd '5전 전패' 울산 넘어설까

오늘 K리그1 25R 제주월드컵경기장서 홈 4연승 도전

좀처럼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 는 제주유나이티드가 홍명보 감독 이 떠난 울산 HD를 상대로 홈 4연 승에 도전한다.

제주는 26일 오후 7시 제주월드 컵경기장에서 울산 HD와의 하나 은행 K리그1 25라운드 경기를 갖

제주는 9승 2무 13패 승점 29로 리그 8위, 울산은 12승 6무 6패 승 점 42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강원과의 원정경기에서 0-4 로 대패한 제주는 울산과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홈 4연승과 함께 분 위기 반전을 시도한다.

하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울산과의 경기는 만만치 않다. 주 민규가 울산으로 이적한 후 제주 는 최근 5경기에서 전패했다. 특히 수비가 무너지면서 지난해 6월 경 기에선 5점을 내주는 등 대량 실점 을 허용하기도 했다. 최근 10경기 로 넓혀도 단 1승을 거뒀을 뿐이고 24골을 내주고 11골을 얻는데 그 쳤다.

26일 경기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울산의 주득점원인 야고 와 주민규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가 연패에 빠진다면 수원에 서 이승우까지 영입한 전북(리그 10위, 승점 23)에게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강등권 추락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골 결정력을 높이는게 우선이다. 제주는 올 시즌 310개 슈 팅 중 유효슈팅이 97개에 불과하 다. 특히 페널티박스 내에서 168개 의 슈팅을 날리고도 고작 25득점에 그치고 있다.

제주는 22~23라운드에서 연속 골 을 넣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리 조나탄과 팀 도움 1위를 달리 는 서진수,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 한 구자철 등의 역할에 기대를 걸 고 있다.

한편 제주는 이날 경기를 제주 청년들이 실질적인 가치와 혜택 을 체감할 수 있는 '제주청년센터 브랜드 데이'로 개최하고 다양한 경품과 함께 각종 이벤트도 제공 한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전국 꽃배달 서비스 주에는 꽃보라플라위

City Flower

l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전국 꽃배달 서비스 꽃비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 전746-0014, H-P 010-3693-5563 제주시 신광로 8길 3(연동)

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대표 강 철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5월 가정의 달 보첨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NAVER에 □랜드보청기 ▼ ○ 를 검색해 주세요

정확한 청력검사와 피팅(보청기 조절)을 통해 난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청취 감이 다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하는 청력검사와 보청기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 · 제주시&서귀포시 무료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 ·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ㆍ청각 복지카드 소지고객 우대

